

금리인상, 종결 아닌 숨고르기... 물가따라 3.75% 가능성

한은, 기준금리 3.50% 동결... 소비·수출지표 등 경기 침체 우려 반영 한미, 1.25%p 차로 22년만에 최대 격차...美, 3·5월 베이비스텝 가능성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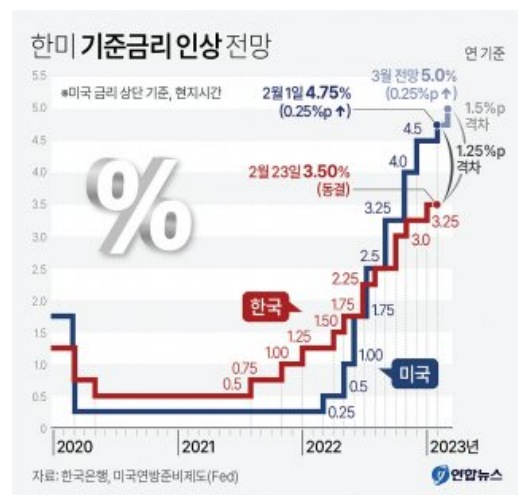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뒷걸음치기 시작한 데다 수출·소비 등 경기 지표도 갈수록 나빠지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를 더 위축시키기보다 일단 이전 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나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동결이 '숨 고르기'일 뿐 완전한 '금리 인상 사이클 종결'이 아니라는 게 이창용 한은 총재의 설명인 만큼, 미국 건축 속도나 강도, 환율과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추가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 총재는 동결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4월 이후 금통위 회의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부터는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패스(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패스(경로)로 가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동결이) 경기를 위해 물가를 희생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물가'를 주로 강조했다지만, 이번 동결에는 경기 침체 관련 우려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와 금융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출이 줄어드는 데 소비도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며 "한은이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낮췄다.

다만 이날 동결로 이번 금리 상승기가 최종 3.50% 수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총재는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은 당분간 기준금리 3.75%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과 격차는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됐는데, 이미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져 실제로 자금이 뚜렷하게 빠져나가거나 다시 1300원을 넘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기대와 달리 3월 이후에도 5%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시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차별화된 설계 기술로 엔지니어링 업계 선도할 것”

비즈 & 피플 <3> 이창범 서진기술개발(주) 대표

40대 후반에 늦깎이 사업가 길...설계·건설사업 관리업 '두각' 지자체 발주 굵직한 사업 도맡아...적자 회사 3배 넘게 키워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엔지니어링 업계로 선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창범 서진기술개발(주)대표는 “엔지니어링이란 산업문명의 가치를 유행화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지식산업이기도 하다”면서 “더 나은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우수한 결과물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엔지니어링 사업은 크게 토목과 건축 분야로 나뉜다. 서진기술개발은 토목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다. 토목 설계와 건설사업 관리업 등을 주력으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만 봐도 서진기술개발의 저력을 알 수 있다. 보성군에서 발주한 '봉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남도에서 발주한 '군남·영광 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지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 같이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을 도맡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서진기술개발을 지역에서 알아주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나, 그가 처음부터 사업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를 취득하고, 관련 업계에서 무려 23년이나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했던 이 대표는 2017년 친구의 제안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친구는 수년 간 적자를 면치 못해 결국 매물로 나왔던 서진기술개발을 인수해 운영해볼 것을 추천했다.

이 대표는 “마음 한 편에 내심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격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이지만 과감히 인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를 인수한 그는 자체 운영 시스템 구축에 매달렸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자체 운영 시스템을 마



현하고 경쟁 업체들과의 무한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고 한다. 40대 후반 '늦깎이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된 이

대표의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던 회사는 흑자로 전환, 매출도 크게 늘면서 인수 당시보다 몸집도 3배 넘게 성장했다.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 대표는 나눔에도 눈을 떴다. 월급쟁이 시절 꿈도 꾸지 못했던 나눔의 기쁨을 뒤늦게 맛보면서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엔지니어링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산업”이라고 말하는 그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시 서구지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가정 이 어려운 모범청소년들을 추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장성군, 장흥군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아이들이 자신의 곁에 '어른들이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위안을 얻으면 합니다. 지치고 외로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네요.”

이창범 대표는 “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술력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 무한경쟁 속에서 서진기술개발이 강소기업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국세청 현장 간담회 여성경제인 애로 청취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23일 무안 삼향읍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경제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광주국세청은 회원들로부터 수집된 신고내역확인 부담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세정지원 등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여성경제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여성경제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에 공감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관계부처에 개정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여성기업인이 처한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취약계층 등과도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강진군민장학재단에 2000만원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 참여한 고병일(왼쪽) 광주은행장이 강진원 강진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강진군청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강진원 강진군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2011년부터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해왔으며, 이번에 전달된 2000만원은 강진군 교육 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현재 71호점)’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현재 8호)’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으며, 1981년 설립한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현재 4300여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총 36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에너지 아끼는 중소기업에 용자 확대

다음달 2일부터 사업 신청

정부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용자 지원 한도와 비율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하고 다음달 2일부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용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사용자나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이 지침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투자 비용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정책자금 용자가 2618억원, 이차보전(금융기관 대출 이자 보조) 방식으로 15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업장당 용자 지원 한도

액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하거나 에너지 효율 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 협력업체 등에는 자금 지원 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90%에서 100%로, 중견기업은 70%에서 80%로 각 10%포인트씩 확대한다.

지원 대상에는 KEEP 30 참여 기업도 포함시켜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EEP 30은 지난해 정부가 국내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원단위를 매년 1%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한 파트너십이다.

산업부는 사업장에 고효율 설비나 전력부하 경감 기기,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효율 혁신 관련 보조 사업에도 올해 19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앙행정기관 45곳 청년인턴 2000명 채용

오늘부터 국토부 등 8곳 269명 모집...만 19~34세 신청 가능

정부가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2000여명을 청년 인턴으로 뽑는다고 국무조정실이 23일 통해 밝혔다.

청년인턴은 청년기본법상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채용 공고문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일괄 게시된다.

우선 지난 22일 공고된 내 고충노동부를 시작으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관세청·통계청·산림청·특허청 등 8개 기관이 오는 24일부터 총 269명의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 근무는 오는 4월경부터 시작한다.

오는 3월에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22개 기관,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무 현장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아울러 단순 업무 수행을 지양하고, 전공과 관심 직종 등을 고려해 전문 분야별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곳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인턴 경력증명서’도 발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전, UAE 해저송전망 사업 'PFI' 우수 프로젝트상 수상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PFI AWARDS 2022' 시상식에서 UAE 해저 송전망사업 재원조달 성공으로 글로벌 금융전문지인 'PFI'가 수여하는 '2022 Deal of the Year'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PFI는 세계적 권위를 갖춘 PF(Project Finance) 전문 금융저널로 매년 심사를 거쳐 전 세계 프로젝트 금융조달 사례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해 분야별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UAE 해저 송전망 사업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유는 이 지역 최초의 해저 송전망 사업이자, 해저 송전망 사업 중 최초로 PF 방식으로 재원조달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컨소시엄(한전+일본 큐슈전력+프랑스 EDF)은 2021년 12월 국제경제법 집행료 해당 사업을 수주한 이후, 변동하는 국제경제 및 유동성 부족, 급속한 금리인상 등 불안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전 금융역량으로 재원조달에 성공했다.

한전은 이번 수상으로 그간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된 한전의 재원조달 역량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은 것은 물론, 해저송전망 사업 최초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공으로 이 분야에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439.09 (+21.41)
코스닥	783.28 (+4.77)
금리(국고채 3년)	3.599 (-0.046)
환율(USD)	1297.10 (-7.80)